

# 도민 문화향유실태 질적·양적 도약

### '문화향유 실태조사' 보고서 관람 → 교육·참여·개인 → 공동체 활동 단계로 변화 중... 양적 증가도

전북도민의 문화향유실태가 '개인' 적이고 '소극'적인 문화향유에서 '적극'적이고 '공동체'적인 문화향유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북연구원(원장 강현직)이 밝힌 '2016 전북도민 문화향유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2013년 1월 조사)에 비해 전북도민의 문화향유실태가 소극적 문화향유인 '관람'을 넘어 '교육·참여'의 적극적 문화향유 단계로 진입하고 있으며, '개인적 문화향유'에서 '공동체 활동' 단

계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양적으로도 4년 전에 비해 상당부분 증가했다.

문화향유실태의 대표지표인 문화예술행사 직접관람률(지난 1년 동안 문화예술행사를 직접 관람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2012년 74.2%에서 2016년 79.2%로 5%p가 높아진 것이다.

또 문화예술 교육경험률은 22.2%, 문화예술행사 참여율은 20.7%, 문화예술공간 이용률은 62.4%, 문화자원봉사 경험률은 12.5%, 문화호응도 차

여율은 14.5%로 조사되는 등 대부분의 조사항목에서 2012년보다 양적 성장을 나타냈다.

전북연구원 장세길 박사(문화관광연구부)는 "전북도민의 문화향유실태가 양적 성장과 질적 도약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도민의 문화향유실태에 맞춰 전북의 문화향유 증진정책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 박사는 또한 지금까지 강조해왔던 문화예술 관람률을 높이는 전략과

더불어, 직접 참여(전시·발표), 공동체 활동(문화자원봉사, 동호회 활동, 동네문화축제)을 증진시키는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박사는 그러면서 "문화향유의 폭 넓음"을 주목하며,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고급예술을 향유하는데 주안점을 둔 정책에서 전환하여 고급예술부터 대중문화까지, 장르적으로 문화부터 영화, 대중음악까지 '향유의 다양성'을 증진하는데 정책의 목표를 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민형 기자

## 더민주 도당 '핵심당원 연수'

### 오늘부터 이틀 동안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춘진)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핵심 당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6~7일 이틀 동안 부안 변산대명리조트에서 '핵심당원 연수'를 개최한다.

이날 연수에는 김춘진 최고위원 겸 전북도당위원장, 임채정 전 국회의원, 안규백 사무총장,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핵심당원, 당직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첫째날은 김춘진 최고위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선거연수원의 '정당정치 발전 방안' 과 임채정

전 국회의장의 '국민과 함께 민주 60년! 국민과 더불어 정권교체를 주제로 특강이 펼쳐진다.

또 김성주 지역위원장이 강사로 나서 '민주당의 집권플랜, 일자리·복지정책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마지막 강의 시간에는 안규백 중앙당 사무총장이 '민주정부 3기 수립은 당원의 힘으로'라는 주제를 통해 내년 대선에서의 당원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이튿날은 부안 마실길 경기를 통해 당원간 화합과 친목을 다질 계획이다.

/신광영 기자

## 도, 구제역·AI 특별방역 추진

전북도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5일 도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체계에 돌입한다.

이에 구제역 예방접종과 농가 차단방역이 강화되고, 철새도래지에 대해서는 집중관리하게 된다.

또 방역대상상황실을 운영해 각 시·군과의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방역 취약 지역에는 전담 방역관리요원 등이 지정된다.

아울러 신축판매 및 가든형 식당 등에 대해서는 주1회 이상 예찰이 이뤄지며, 방역교육 및 방역실태 점검도 월 1회 이상으로 확대된다.

도 관계자는 "각 축산농장에서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거리에서 우리 역사를 알린다 '역사는 미래다'를 주제로 고창읍성 일원에서 어제부터 오는 9일까지 열리는 '제43회 고창모양성제'가 화려하게 개막한 가운데, 축제 첫날인 5일에는 '고창모양성제'의 시작을 알리는 '거리퍼레이드'가 고창읍에서 펼쳐졌다. <관련사진 11면>

## 도, 구제역 항체형성률 85% 이상 인센티브 제공

전북도가 구제역 방역 강화를 위해 백신 접종이 우수한 농가에 대해 올해부터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구제역 백신 접종 이후 항체형성률을 조사해 85%를 초과한 농가에 대해서는 방역 약품비와 기자재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농가당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구제역 평균 항체형성률은 67%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85%를 초과해 지원을 받는 농가는 20% 정도가 될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를 구제역 AI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예찰과 소독 방역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도, 작년 학교운영비 중 전기요금 비중 22%

### 박정 "전년 대비 3%p 증가·전국 평균 19%보다 높아... 교육용 전기요금 개선해야"

전북지역 초·중등학교 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운영비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같은 전기요금 증가는 학교 재정 운영 부담을 크게 늘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공사와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학교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2.2%에 달했다.

이는 전국 평균 19%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29.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 24.2%, 충북 24.1%, 그리고 전북이 뒤를 이었다.

그리고 인천과 경남이 각각 21.6%, 제주 20.3%로 전국평균을 상회했다.

전북은 지난해 대비 전기요금 비중

이 19.1%를 차지했지만 1년 새 3%p포인트 증가했다. 다시 말해 1년 사이 학교 운영비는 61억원 줄었지만 전기요금이 26억3,000만원 늘어 학교 재정 운영에 부담이 커진 것이다.

박정 의원은 "교육은 수익성을 따질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면서 "미래세대 위한 투자로 보고 교육용 전기요금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고민형 기자

## "2013년 이후 주가조작 검찰고발 159건"

### 김관영 의원 "엄중한 처벌 필요... 감시체계 더욱 강화해야"

한미약품의 농장 공사로 인해 증권시장에서 부당행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최근 3년 주가조작으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사건이 6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전북 군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가조작 관련 사건 접수 현황(2013~2016년 8월)'에 따르면 2013년 이후 3년 반 사이에 접수된 건만 665건으로 확인됐다.

2013년 186건이던 것이 2014년 178건, 2015년 151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올해 8월 기준 150건으로 이미 작년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최근 농장공사로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는 한미약품에 대해서도 감독당국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농장공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산=문정근 기자

건, 경고 96건, 단기매매차익반환 96건, 과징금 8건이다.

조사대상이 된 주가조작 사건의 위반유형별로는 보편, 시세조정이 1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공개정보이용 146건, 대량소유주식변동보고 위반 143건, 단기매매차익 취득 12건이다.

김관영 의원은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주가조작이 적어 주가조작이 상대적으로 쉬운 코스닥 시장에서 사건 발생 빈도가 높은 만큼 감독당국이 해당 시장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최근 농장공사로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는 한미약품에 대해서도 감독당국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농장공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산=문정근 기자

## 군산시의회, 올해 일정 확정... 임시회 11일부터

군산시의회는 5일 제 205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198회 임시회 일정과 2차 정례회 회기 및 행정사무감사 기간 등 15건의 부의안건을 상정기로 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제198회 임시회를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개최하고, 제2차 정례회를 11월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36일간으로 확정했다.

또, 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15일부터 23일까지 9

일간으로 결정하고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제198회 임시회에서는 2016년 업무추진 실적 및 2017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와 신영자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군산=문정근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주매일의 창간 8주년을 축하합니다

—군산지역 애독자 일동—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